

18.07.16(월)~18.07.20(금)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89	1,424,956	1.0	9.4	11.3	-0.9	-3.2	-7.6	-9.2	-7.2	-431	-110	-204	1,579	8,029
KOSDAQ	792	155,648	2.5	17.7	14.5	-4.4	-5.8	-11.0	-10.0	-0.9	-99	-254	32	516	2,144
보험	17,554	20,220	0.6	9.8	6.6	-0.4	-5.2	-7.9	-20.8	-17.0	1	-28	3	17	116
증권	1,798	18,516	0.8	8.3	9.5	-4.0	-10.5	-13.9	-19.7	-9.5	-44	-6	-12	31	121
삼성생명	97,300	19,460	0.6	8.2	7.1	1.5	-3.2	-12.7	-27.1	-21.8	-5	-2	0	6	32
한화생명	4,920	4,273	0.5	7.5	6.0	-3.5	-13.7	-19.3	-33.0	-28.8	-7	-2	-1	1	7
ING생명	40,050	3,284	0.9	9.6	9.3	-2.1	-7.9	6.4	-26.2	-25.0	-0	1	0	1	7
동양생명	7,230	1,167	0.5	8.1	5.8	-2.0	-8.2	-13.1	-3.2	-4.9	-0	-0	0	0	2
삼성화재	267,500	12,673	1.0	11.6	9.0	0.6	-0.6	-0.6	-3.8	0.2	3	-4	1	4	26
DB손해보험	60,700	4,298	0.8	6.2	13.1	-1.3	-4.4	0.5	-15.6	-14.7	7	-5	3	2	17
현대해상	34,050	3,044	0.8	5.5	15.6	-0.7	-9.0	-6.6	-27.5	-27.6	7	-12	4	1	14
메리츠화재	18,250	2,075	1.1	6.7	16.8	-3.7	-11.8	-10.8	-24.0	-22.3	-3	-3	-1	0	6
한화손해보험	6,510	760	0.6	5.2	11.9	0.0	-10.2	-12.3	-26.4	-20.0	0	-1	-0	0	2
삼성증권	32,400	2,893	0.6	7.8	8.1	-2.8	-9.6	-10.5	-20.4	-11.5	-7	-1	-2	4	15
미래에셋대우	7,930	5,220	0.7	8.4	8.4	-5.4	-10.0	-15.5	-21.1	-13.7	-13	-6	-3	12	41
NH투자증권	13,100	3,686	0.8	8.6	9.1	-6.8	-14.1	-11.5	-16.6	-5.8	-13	2	-3	5	25
한국금융지주	71,400	3,979	1.0	6.9	14.8	-9.0	-17.4	-13.6	-14.1	3.5	-17	9	-2	7	32
키움증권	93,600	2,069	1.1	7.2	17.9	-7.3	-16.1	-19.3	-9.6	6.8	-7	4	0	3	16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 KOSDAQ 중심으로 시장이 하락하며 금융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을 가진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보험업 중에서는 손해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음. 즉시연금, 암보험 등의 규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G.A 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임. G.A 채널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G.A 간 실적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G.A 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시책 지급은 불안한 판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TM 판매 개시: 삼성화재가 개인용 대상으로 TM 영업을 개시함. 현재 TM 시장의 점유율은 DB 27%, 약사 17%, 현대 16%, 한화 12% 순임
▶ 금감원, 보험사 필드테스트 이달 완료: 23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의 K-ICS 필드 테스트 결과가 이달 중 금감원에 제출될 예정임. 올해 2월에 K-ICS의 초안이 배포되었으며 관련 결과를 제출하는 것임. 이후 2019년에 필드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고 빠르면 2019년말 K-ICS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임
- 증권** 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KOSDAQ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들의 매매비중 하락, 회전을 하락으로 일평균거래대금이 8.7조원 수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임.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까지 확대되며 H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ELS 운용과 관련된 우려감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국회 정무위원, 인터넷 은산분리 완화 찬성기류 우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10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했음. 그간 여당의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민병두, 정재호 의원이 찬성을 표시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다만 시민단체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음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3Q17		4Q17	1Q18	2Q18	3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7	-3.5	13.0	12.4	14.3	15.0	12.4	8.9	-28.3	8.2	11.8	13.8	13.9	8.9	-36.0	
KOSPI	5.0	-5.6	6.9	6.9	7.8	9.1	7.5	5.5	-26.8	5.2	6.0	7.0	8.1	5.5	-32.2	
KOSDAQ	3.7	-0.4	6.2	5.5	6.5	5.9	4.9	3.4	-30.5	3.0	5.8	6.8	5.8	3.4	-41.3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4	15.6	11.2	11.3	12.2	12.5	11.8	11.4	-3.5	8.3	9.8	11.3	11.8	11.4	-3.5	
KOSPI	5.8	29.6	5.3	5.4	6.0	6.2	6.0	5.8	-3.0	4.0	4.5	5.4	6.0	5.8	-3.0	
KOSDAQ	5.6	4.0	5.9	5.9	6.2	6.3	5.8	5.6	-3.9	4.3	5.4	5.9	5.8	5.6	-3.9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1	-1.0	1.84	1.89	1.85	1.85	1.85	1.81	-3.6	1.53	1.85	1.89	1.85	1.81	-3.6	
3년	2.08	-4.0	2.27	2.22	2.22	2.20	2.12	2.08	-4.7	1.89	2.13	2.22	2.12	2.08	-4.7	
5년	2.31	-2.5	2.52	2.43	2.49	2.48	2.35	2.31	-4.1	2.08	2.35	2.43	2.35	2.31	-4.1	
10년	2.52	3.0	2.74	2.62	2.72	2.70	2.56	2.52	-3.3	2.37	2.47	2.62	2.56	2.52	-3.3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1	0.2	5.8	6.2	6.4	6.1	6.0	6.1	0.1	6.2	6.0	6.2	6.2	6.1	-0.1	
미래에셋대우	12.4	-0.2	13.2	13.1	13.2	12.8	12.3	12.4	0.0	12.7	13.2	13.3	12.8	12.4	-0.5	
NH투자증권	6.3	0.3	6.1	6.3	6.4	6.4	6.4	6.5	0.1	5.7	6.4	6.3	6.4	6.5	0.1	
한국금융지주	5.4	-0.4	5.5	5.5	5.5	5.2	5.1	5.3	0.2	6.1	5.8	5.7	5.3	5.3	0.0	
키움증권	17.4	0.9	17.5	17.1	18.5	18.2	17.9	16.9	-1.0	15.3	17.4	17.5	18.2	16.9	-1.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 보험** - 금주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대외 측면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5천억달러 관세 부과 발언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그리고 위안화 및 유로화에 대한 환율 불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초기에는 타협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그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방어주 성격, 환율에 대한 노출도가 적은 산업,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생명보험업종의 경우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른 변액보충준비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과거 대비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경영상적인 실적의 불확실성(규제 관련, 즉시연금, 암보험금 등)이 있어 우리는 손해보험사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유함.
- 우리의 최선호 종목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유지하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삼성화재까지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증권** - 전주 일평균거래대금은 8.7조원으로 7월 이후 주간단위로 감소하고 있음. KOSDAQ 시장의 약세로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되었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주 증권업종의 추가 하락으로 Valuation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어 단기 반등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H 지수를 비롯한 중국관련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ELS의 조기상환, 그리고 발행 감소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증권업종은 높은 β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성과를 시현한 하였음. 따라서 시장의 안정화가 증권업종 반등에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증권사의 수익원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형증권사의 시장 변수의 영향(ROE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증권업종 내의 종목 차별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7월 21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7월 26일	한국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도지 발표	2.8%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과열된 GA 인센티브, 보험료 끌어올린다...금융당국 '금제동' (아이뉴스) 금융당국은 올해 말을 목표로 GA채널의 시책비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GA채널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GA 간 실적,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p> <p>▶ [단독] 삼성화재, 개인 차 보험 TM 판매 시작...중소형사들 '긴장' (머니투데이)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TM) 시장에 본격 진출,개인 대상 TM 영업 시작</p> <p>▶ 미래에셋캐피탈 부채 급증...지주사 전환 않고 자체 사업 키우기(아시아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말 기준 149%로 이 기준을 겨우 맞췄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도 148%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p> <p>▶ 이주비 막힌 재건축에 등장한 '누 11% 고리' (매경) 정부 LTV로 대출규제 강화로 시공사 이주비 지원도 봉쇄해 '이주포기' 조합원 속출 상황. 증권사 '규제트세' 노리고 펀드형식 고리 대출 내놔. 이주임박·지연된 조합은 고민... "편법만 부추겨" 불만 부글</p> <p>▶ 13년만에 퇴직연금 '큰 틀' 손질하는 정부 (이데일리) 금감원, 17일 퇴직연금시장 관행개선방안 발표. 연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검토하는 등 운용 효율성 제고에 나설 방침. 금융위 고용노동부와 협의중. 고용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살펴야"</p> <p>▶ [단독] '발기 힘든' 재해사망 보험금...금융당국 '일부 지급' 관행에 제동거나 (서울파이낸스) 한화생명 '일부 지급'은 업계 관행' VS 금감원 '전액 지급해야'. 재해사망 면책 사유인 '경미한 외부요인' 명확한 기준 없어</p> <p>▶ 홍콩 H지수 투자 ELS 손실 가능성 커져... 금감원, 증권사-은행 점검(조선일보) 먼저 오는 9월엔 은행 신탁을 통해 판매되는 ELS인 ELT(추가연계신탁)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p> <p>▶ 한화손보, 신종자본증권 발행 '국내' 택했다 (더벨) RBC비율 200% 충족시 최소 2000억 필요할 듯, 금리상황 고려한 결정 풀이</p> <p>▶ 실탄 갈증 푼 케뱅·카뱅...다시 금리경쟁 '메기' 되나 (한경)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을 공식 선언.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p> <p>▶ '자본감식 문제없나'... 금감원, 보험사 필드테스트 이달 완료 (뉴스핌) 보험사 K-ICS 필드테스트 결과를 이달 중에 금감원에 제출</p> <p>▶ 삼성생명, 삼성동빌딩 매각 돌입 (더벨) 지난주 부동산전문사에 RFP 발송, 내주 19일 매각주관사 입찰 예정...2000억원대 전망</p> <p>▶ 금융당국, 삼성생명 대주주 규제 '간극' (더벨) 적격성 심사대상 '이견회'...인허가 등 감독실무상 '이재용' 포함</p> <p>▶ 운용수익률 방어 나선 보험사, 계열사 회사채 투자 (연합인포) 환 헤지 부담 확대로 해외채권 투자 어려운 가운데 국내 우량 회사채 및 계열사 회사채 투자에 나서.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 회사채 300억 원을 취득. DB손해보험, 지난 2월 DB생명의 후순위채 100억 원을 인수. 금리는 5.2%</p> <p>▶ 급증하는 보험약관대출...보험사 가입자 희비 엇갈려 (아시아투데이) 보험약관대출, 작년 1분기 비 2배 넘는 증가율. 경기둔화와 대출축소에 풍선효과처럼 늘어나. 소비자 불리한 만큼 보험사 수익보전 가능해</p> <p>▶ NH증권, 발행어음 출시 효과 '톡톡' (더벨) 지난 2일 출시후 7000억 돌파, 반기 목표 달성 '청신호'</p> <p>▶ 윤석열 '록' 찍은 암 보험금 지급, '데드라인이 없다?'...보험사 '버티기' 돌입 (이투데이) 최근 암보험금 지급 관련 자율조정 절차의 데드라인 정해지지 않아. 약관, 조건 등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내놓기 어려워. 지난날 말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진중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하였음.</p> <p>▶ 삼성생명, 유병자 실손보험 '첫선'...생보업계 출시 '신호탄' (서울파이낸스) 생보업계 첫 출시...연계마케팅으로 유병자시장 공략. NH농협·한화생명도 출시 예정...손보업계와 시장 경쟁</p> <p>▶ 증권사 IB, 제2 전성기 맞은 리츠 주목 (머니투데이) 미래에셋대우 리츠금융 TF 설립...계열사 협업으로 투자 수익 높이고 유망 상품 공급</p> <p>▶ 미래에셋대우 이달 2,500억 회사채 발행 추진 (서울경제) 지난 4월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달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차입구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화시키려는 전략</p> <p>▶ 차입만기 늘리는 증권사들... 메리츠증권도 회사채 발행 (마켓인사이트) 메리츠증권, 다음달 초 3년물 2,000억원 발행. 지금껏 찍은 채권 중 최대규모. 올해 증권사 채권발행 줄이어</p> <p>▶ 우리銀, 지주 출범 후 'M&A 큰 손'? ...낮은 자본비용의 한계 (인베스트조선) 자회사 출자여력 5000억→7조원 상승. 보통투자자본비용 대형은행 최하위권. 지주 자금 조달도 문제...M&A 속도 조절할 듯</p> <p>▶ SK증권 인수안, 금감원 통과...이르면 이달말 결론 (머니투데이)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보고서 제출...18일 증선위 안건 논의 전망</p> <p>▶ 플랫폼 주도권 잡자...금융권 '격과의 동침' (매경) 경쟁사나 스타트업과 함께 환전·송금 등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토스와 간편송금 나서...신한銀, 현대카드와 손잡아. 신라면세점은 신한카드 제휴</p> <p>▶ '유증 실패' 케이뱅크... 지분구조 바뀌나 (파이낸셜) 케이뱅크가 당초 목표인 1500억원 유상증자 중 300억원만 성공하며 추가유증 불가피한 상황. 우리銀 지주사전환 관련 지분을 변동 추측도 나와. 은산분리 규제완화 기대감</p> <p>▶ 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 결정 내달로 연기 요청...금감원 수용 (서울파이낸스) 금감원 '일괄지급' 방침에 고민 깊어지는 생보업계...이달까진 어려울 듯</p> <p>▶ "국채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사 손익 변동 확대 자산운용전략 마련해야" (디지털타임즈) 보험연구원,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 분석' 보고서. IFRS9 도입으로 주식,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영향 등</p> <p>▶ 금감원, 중국당국에 "韓보험사 진출 인가심사 신속처리" 요청 (연합)</p>

7. Global Peers

한국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KOSPI	2,311		1.0	9.0	19.5	9.4	-0.9	-2.9	-7.5	-9.8	-7.2	
보험	17,618		0.7	8.4	6.4	0.6	-0.4	-3.6	-9.5	-21.2	-17.0	
삼성생명	95,900	17.2	0.6	10.1	5.7	0.5	1.5	-1.5	-12.7	-27.1	-21.8	
한화생명	5,100	3.8	0.4	6.9	5.8	0.5	-3.5	-10.5	-19.3	-33.0	-28.8	
ING생명	40,900	2.9					-2.1	-1.8	6.4	-26.2	-25.0	
동양생명	7,380	1.0	0.5	7.9	7.1	0.6	-2.0	-5.5	-13.1	-3.2	-4.9	
삼성화재	266,000	11.2	1.0	10.6	8.8	1.5	0.6	2.1	-0.6	-3.8	0.2	
DB손해보험	61,500	3.8	0.9	6.8	13.0	1.5	-1.3	0.3	0.5	-15.6	-14.7	
현대해상	34,300	2.7	0.9	6.2	14.8	1.2	-0.7	-4.4	-6.6	-27.5	-27.6	
메리츠화재	18,950	1.8	1.1	7.4	15.1	1.7	-3.7	-7.4	-10.8	-24.0	-22.3	
한화손해보험	6,510	0.7					0.0	-7.4	-12.3	-26.4	-20.0	
증권	1,874		0.7	7.6	9.1	0.9	-4.0	-7.8	-13.2	-23.6	-9.5	
삼성증권	33,350	2.6	0.6	7.8	8.2	0.9	-2.8	-9.2	-10.5	-20.4	-11.5	
미래에셋대우	8,380	4.6	0.6	8.0	8.1	0.7	-5.4	-8.7	-15.5	-19.3	-11.7	
NH투자증권	14,050	3.3	0.8	8.7	9.0	1.0	-6.8	-13.5	-11.5	-16.6	-5.8	
한국금융지주	78,500	3.5	1.0	6.9	14.7	1.1	-9.0	-15.6	-13.6	-14.1	3.5	
키움증권	101,000	1.8	1.1	7.4	16.5	2.4	-7.3	-13.3	-19.3	-9.6	6.8	
일본	Nikkei225	22,597		1.7	16.4	10.2	2.0	2.3	0.8	2.8	-5.9	-0.3
보험	1,001		0.8	10.3	7.0	0.7	-0.2	-1.4	-2.4	-11.0	-5.9	
Dai-ichi Life Holdings	4,480	30.5	2.7	55.9	4.7	2.6	10.3	10.3	27.7	45.3	63.4	
Japan Post Insurance	2,286	12.2	0.7	14.9	4.6	0.1	-0.3	-3.9	-12.3	-19.5	-14.2	
Tokio Marine Holdings	5,266	34.6	1.0	14.1	7.3	1.1	-2.3	-4.7	3.9	-3.4	0.4	
증권	393		0.8	9.5	8.3	0.6	2.6	0.8	-8.3	-18.6	-8.4	
Nomura Holdings	542	17.9	0.7	7.6	9.0	0.6	2.7	1.2	-14.1	-25.4	-17.7	
Daiwa Securities	656	10.1	0.8	10.2	8.6	0.6	1.4	6.6	-1.6	-16.0	-6.5	
SBI Holdings	2,719	5.8	1.4	12.6	11.9	1.2	7.4	-3.7	2.6	14.1	22.5	
중국/홍콩	Hang Seng	28,525		1.2	11.4	12.8	1.1	-1.1	-3.8	-6.7	-14.3	-5.7
상해A주 지수	2,965		1.3	11.3	12.1	1.2	-0.1	-2.1	-7.8	-20.2	-14.4	
보험	145		1.2	10.8	11.3	1.9	-0.0	-6.8	-8.1	-28.1	-19.8	
China Life	20	91.7	1.3	11.4	12.7	1.5	0.6	-4.9	-8.1	-22.4	-18.6	
Ping An Insurance	71	165.2	2.0	11.3	19.5	1.5	0.9	-6.0	-11.9	-23.1	-11.8	
AIA	68	104.2	2.3	18.4	13.0	2.6	-0.5	0.1	-0.5	1.7	1.7	
증권	93		1.1	14.6	7.9	51.8	-1.2	-3.8	-20.9	-34.7	-27.5	
CTIC Securities	15	28.9	1.0	12.4	8.5	2.0	-0.5	-5.9	-16.4	-23.2	-4.8	
Haitong Securities	8	14.6	0.6	8.4	7.7	1.8	0.3	-4.4	-25.4	-38.9	-30.8	
Huatai Securities	12	15.1	0.8	9.5	8.8	2.0	0.8	-7.7	-20.6	-34.7	-22.5	
미국	S&P500	2,798		3.2	17.5	18.7	3.6	0.0	1.7	4.9	-1.3	4.8
보험	378		1.3	11.7	11.1		0.4	1.0	-4.3	-9.1	-5.6	
AIG	54	47.9	0.7	11.0	6.8	0.9	-1.7	-1.7	-3.8	-13.4	-10.5	
Metlife	44	44.5	0.9	8.6	10.3	0.7	-1.0	-4.2	-7.9	-18.1	-13.4	
Prudential Financial	95	40.0	0.8	7.8	11.8	0.6	0.2	-1.2	-11.0	-23.3	-17.2	
증권	203		2.1	14.9	13.0	1.3	1.0	-1.5	-1.7	-6.3	1.0	
JP Morgan	107	378.9	1.6	12.2	13.5	1.2	4.6	3.5	-0.2	-1.5	4.1	
Goldman Sachs	227	90.9	1.2	9.6	13.0	1.0	2.3	2.1	-8.0	-9.5	-9.1	
Charles Schwab	51	70.4	3.8	21.4	19.2	1.3	3.0	-5.7	-5.2	-6.0	1.5	
유럽	MSCI Europe	130		1.8	14.6	10.2	1.0	0.1	0.2	0.6	-4.4	-1.1
보험	73		1.1	10.6	12.5	0.5	0.4	-0.5	-7.5	-9.5	-4.5	
Allianz	180	91.3	1.2	10.4	11.4	0.9	0.8	4.5	-6.3	-11.8	-5.3	
AXA	21	58.9	0.7	8.3	8.9	0.6	0.0	-2.4	-11.4	-24.1	-16.1	
Prudential plc	1,734	60.9	2.6	12.0	23.8	0.5	3.7	0.4	-4.5	-9.6	-6.1	
Munich Re	188	32.0	1.0	10.8	9.0	1.1	-2.4	3.7	-6.6	-4.8	1.2	
증권	71		1.1	14.7	6.4	0.4	1.5	0.7	-3.5	-12.8	-8.1	
UBS	15	59.3	1.1	11.2	9.1	0.5	2.5	1.3	-9.3	-20.6	-13.0	
Credit Suisse	15	39.1	0.9	13.0	6.8	0.4	2.3	1.8	-4.6	-15.5	-11.2	
Deutsche Bank	9	24.8	0.3	23.4	0.9	0.0	6.8	9.4	-11.4	-33.1	-35.4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주: 아시아는 금요일 증가기준, 미국 및 유럽시장은 목요일 증가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한국	국고채	1 Year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10	1.854	1.849	1.854	1.801	1.853	-4.4	-3.9	-4.4	0.9	-4.3
		3 Year	2.075	2.102	2.160	2.192	2.172	2.134	-2.7	-8.5	-11.7	-9.7	-5.9
		5 Year	2.310	2.340	2.407	2.440	2.442	2.347	-3.0	-9.7	-13.0	-13.2	-3.7
		10 Year	2.522	2.557	2.612	2.665	2.640	2.467	-3.5	-9.0	-14.3	-11.8	5.5
일본	국고채	1 Year	-0.125	-0.130	-0.131	-0.136	-0.133	-0.145	0.5	0.6	1.1	0.8	2.0
		10 Year	0.035	0.040	0.039	0.060	0.085	0.048	-0.5	-0.4	-2.5	-5.0	-1.3
중국	국고채	1 Year	3.137	3.073	3.283	2.975	3.588	3.834	6.4	-14.6	16.2	-45.1	-69.7
		10 Year	3.516	3.499	3.617	3.548	3.978	3.902	1.7	-10.1	-3.2	-46.2	-38.6
미국	국고채	1 Year	2.389	2.344	2.345	2.190	1.774	1.732	4.4	4.4	19.9	61.5	65.7
		10 Year	2.893	2.827	2.939	2.960	2.659	2.405	6.6	-4.6	-6.7	23.4	48.8
유럽	국고채	1 Year	-0.525	-0.537	-0.593	-0.542	-0.545	-0.611	1.2	6.8	1.7	2.0	8.6
		10 Year	0.370	0.340	0.377	0.590	0.568	0.427	3.0	-0.7	-22.0	-19.8	-5.7

자료: Bloomberg

주: 아시아는 금요일 증가기준, 미국 및 유럽시장은 목요일 증가기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조건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